

# 미래가 더 밝은 해남 만들기 '지속가능발전위' 첫 발

### 군의원·교수·시민단체 활동가 등 30명 참여 '민관협의체' 출범 2045년까지 발전 전략 제시...경제·환경 등 152개 정책 과제 구성

해남군의 발전을 모색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첫 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해남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남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수립 및 이행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2022년 1월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2022년 12월에 제정된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 ▲추진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군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제언 등 균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명현관 군수를 포함해 군의원,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안)'에 대한 설명과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또 해남군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H-SDGs)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지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군은 올해 초 기본전략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속가능발전의 취지에 맞춰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왔다. TF팀의 정기적인 회의와 더불어 군민과 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속가능발전의 이해도와 군민들의 요구를 파악했으며, 군민 100여명이 함께 참여한 주민참여단 공론 과정을 3회 진행하여 비전, 목표, 정책과제, 지표 등을 논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9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식 후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의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해남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청사진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미래가 더 살기 좋은 해남'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 전략은 경제, 사회, 환경, 협치 분야에서 총

17개의 해남군 지속가능발전목표(H-SDGs), 62개 세부목표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152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해남군은 연말까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년마다 지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기본전략 수립은 해남군의 특성을 반영하고, 군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추석 보름달 동동~ 해상 불꽃쇼 팡팡~

목포해상W쇼.

### 목포해상W쇼 평화광장 일원 14일 방송인 하하 레게 퍼포먼스 연휴 내내 뮤직 불꽃쇼 등 다채

목포해상W쇼가 한가위 대목을 맞아 한층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목포시는 목포해상W쇼 마지막 정기공연이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는 14일 오후 8시부터 평화광장 해상 무대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10일 밝혔다. 추석 귀성객과 관광객을 겨냥한 이번 공연은 역동적인 무대 공연과 더불어 더욱 화려해진 연출로 목포만의 맛과 흥을 한층 돋보이게 할 예정이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이번 해상W쇼에는 인기 방송인 겸 가수인 하하와 한국을 대표하는 레게 뮤지션 스킵로 구성된 '레게 강 같은 평화'가 참여해 신나는 레게음악과 퍼포먼스로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더해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K팝에 맞춰 춤추는 음악분수와 화려한 불꽃이 어우러진 뮤직 불꽃쇼가 10여 분간 진행되며 목포 가을밤의 낭만을 관람객과 함께 나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올해 마지막 공연이 개최되기까지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목포해상W쇼와 함께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목포경찰,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 캠페인



### 목포실내체육관서 홍보 물품 배포

목포경찰은 11일 목포 흥일중·고등학교 정문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사진)을 실시했다. 이어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목포 진로나침반 페스티벌' 행사장을 찾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과 딥페이크가 성범죄라는 문구가 새겨진 전단지

와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김범상 목포경찰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이버 범죄(도박·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딥페이크를 미리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신안군 국내 첫 민간 해상풍력단지 조성 '순조'

### 시찰단 현장 방문 중간 점검

신안군이 국내 최초 민간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김원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박홍률 목포시장, 서철수 한전 부사장, 지방의원 등 50여 명이 목포신항을 방문해 국내 최초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99MW급 해상풍력

### 사업 현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목포신항은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해상에서 추진 중인 99MW급 SK E&S 전남해상풍력 발전단지 주요 기자재가 들어와 해상풍력 발전기 일부 조립 등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해당 발전단지는 SK E&S와 해상풍력 전문기업인 덴마크의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내

에서는 최초로 민간 기업이 개발·투자하는 해상풍력 사업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개발의 공익정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순항하고 있다"며 "해상풍력 사업에 지역 업체도 함께하고 국내의 자본 투자도 이끄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완도군-해양과학기술원 '바이오산업' 발전 협력

### 기술·연구 개발·실증화 등

완도군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과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 분야는 ▲해양바이오 관련 기술·연구 개발과 보급, 기업 등의 실증화 지원 ▲해양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과 인적 교류 ▲해양바이오와 해양조사 관련 장비·시설 등의 인프라 공동 활용 ▲해양바이오 벤처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등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해양자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 역량, 전문성이 연계되면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정부 정책, 지역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고차

가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승 원장은 "천혜의 바다 환경을 보유한 완도군과 해양바이오 분야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대한민국 해양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국내 해조류 최대 생산지로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 등 인프라 조성과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연구 기관으로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의 해양 정책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영암 금정면에 농촌유학센터 들어선다

### 영산강 수변구역 공모사업 선정...유학생 거주센터 마련

영암군 금정면에 농촌유학센터가 들어선다. 영암군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025년 수변구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받은 국비 등 20억원을 들여 연면적 2층 330㎡ 규모의 농촌

유학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7개 시·군의 사업을 평가해 선정된 이번 공모는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개발·생활 제약 등 불편을 겪어온 지역민의 숙원 해

소,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다. 군은 '금정초·중학교 농촌유학센터 건립사업'을 제출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양동채 영암군 환경기후과장은 "금정면에 농촌유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마련해 활기차고 활력있는 시골학교 만들기의 계기를 마련하고 전국에서 유학생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

## "왕새우 맛보러 오세요" 진도군-직큐 "농수특산물 판촉 확대"

### 신안군, 27일부터 팔금도서 축제

신안군은 팔금도에서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제6회 섬 왕새우축제'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섬 왕새우축제는 지난 2010년 신의도를 시작으로 장산도, 안좌도를 거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팔금도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팔금도 축제에는 9000여명의 방문객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행사 기간 중 평일에는 농수산물 판매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공연과 관광객 참가 프로그램 등이 이어진다. 신안군은 전국 왕새우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주요 왕새우 생산지로, 807ha의 면적에서 약 4억 마리의 왕새우를 양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3039t에 이르며, 매출액은 506억원을 기록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진도군이 (주)직큐와 진도 농수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희수 진도군수를 비롯해 이용원 직큐 대표, 손수영 애즈위메이크 대표 등 관계 임직원이 참여해 지역 농식품 특산물의 유통 디지털 전환과 판매 활성화, 신규 농식품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애즈위메이크는 동네 마트와 마트 인근 거주민을 연결해 온라인 식료품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인 '큐마켓'을 운영하는 신생 창업 기업(스타트업)이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직큐는 큐마켓의 유통을 담당하는 애즈위메이크의 자회사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 농수특산물이 산지 직송 온라인몰 직류를 통해 판매가 활성화돼 진도 군민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